

어린이 문화시설의 현주소와 향후 과제

이윤진 연구위원

소득수준이 늘어나고 주 5일 근무의 확대로 인해 시민들은 여가를 누리고 문화를 향유하려는 등 삶의 질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핵가족화, 소자녀화, 자녀의 질 높은 교육에 대한 수요 증대, 아동중심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으로 일반 문화시설과 더불어, 어린이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어린이 문화시설수가 증가하는 추이지만, 전체 공공도서관 중에서 어린이 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10%가 안 되며, 국립 어린이박물관이 없는 시도가 아직 있는 게 우리나라 어린이 문화시설의 현주소이다. 어린이 문화시설은 일반문화시설과 다르다. 어린이도서관이나 어린이박물관과 같은 어린이 문화시설에서는 '정숙'을 요구하지 않는다. 어린이도서관에서 아이들은 안방에서처럼 기고 뒹굴고 놀면서 책을 읽을 수 있으며, 어린이박물관은 채도가 낮은 정적인 분위기에서 전시된 유물을 단순히 관람하는 곳이 아닌,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탐색하면서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열린 교육공간이다. 정책 제언으로는 어린이 문화시설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어렸을 때부터 누구나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립 시 지리적 접근성의 중요성 및 문화시설에 가면 자녀뿐 아니라 부모(가족)도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족단위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제안하였다.

1. 들어가며

우리나라 영유아들은 문화시설¹⁾을 어느 정도 이용할까? 2013년에 실시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대상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이들 문화시설을 이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약

80~96%로, 문화시설을 접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으며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근처에 이용 가능한 시설이 없어서'라고 보고되었다.²⁾

우리나라에서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관심이 문화정책의 중요한 영역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던 1970년대 전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행한 이윤진·이정원·구자연(2013)의 「영유아 문화인프라 이용실태와 지원방안」 일부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임.

1) 여기서 문화시설의 범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명시된 문화시설로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공연장임.

2) 문화시설마다 수치가 달랐는데, 어린이도서관은 79.8%, 어린이박물관은 85.7%, 어린이미술관은 95.8%가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함 (이윤진·이정원·구자연(2013). 위의 책, pp.99-100).

후라 하겠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3차시기인 1970년대에 정부는 문화예술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1973년 3월 한국 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되었다. 이듬해 1974년에는 1차 문예중흥 5개년계획(1974~1978)으로 문예진흥 중장기계획이 최초로 수립되었다. 문화시설이 대대적으로 확충된 계기는 1990년에 발표한 ‘문화발전 10개년계획(1990~1999)’정책이다. 이후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등의 문화시설의 시설수는 증가하고 1관당 인구수는 감소하는 등 양적으로 발전해 왔다. 2012년 기준으로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은 각각 694개, 154개이며 문예회관은 209개이다.³⁾

이처럼 문화시설의 양적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도 어린이 문화시설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유물’이 아닌 ‘체험’ 중심의 어린이박물관도 민간 기업에서 처음으로 세웠는데, 1995년에 삼성어린이박물관이 그것이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비로소 정부는 어린이박물관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2003년),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2005년), 국립경주박물관 어린이 박물관(2005년) 등 기존의 국립박물관을 기반으로 체험중심의 어린이박물관을 설립해 나갔다. 어린이도서관의 경우도 1990년대까지 어린이 전용 도서관은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과 양평어린이 도서관 2곳뿐이었다가, 2003년에 한 방송국에

서 실시한 ‘기적의도서관’ 프로젝트로 인해 어린이도서관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 중에서 어린이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10%가 채 안 된다.⁴⁾

영유아 자녀의 문화시설 이용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부모들이 ‘근처에 이용가능한 시설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어린이 문화시설 중에서 어린이 도서관과 어린이 박물관·미술관에 한정하여 설립 현황 등을 짚어보고 어린이 문화시설의 필요성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2. 어린이도서관 설립의 필요성 및 운영 현황

가. 어린이도서관 설립의 필요성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필요한 이유는 어린이도서관 설립에 사회적 관심을 촉발한 기적의도서관의 설립 의도와 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 기적의도서관은 다음의 세 가지 기본적인 의도와 정신을 담고 있다.⁵⁾ ① 아이들을 잘 키우는 책임과 육아의 경비는 온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것 ② 어린이도서관은 아이들의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기본시설이며 우리사회는 그런 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에 마땅히 투자해야 한다는 것 ③ 어린이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를 일구는 풀뿌리 운동의 중

3) 문화체육관광부(2012a), 2012 전국 문화시설 총람, p.14.

4) 강정아·김수현·박소희·정세나(2013), 도서관의 첫발걸음, 영·유아서비스, 경기: 경기도사이버박물관, p. 25.

5) 정기용(2010), 기적의 도서관: 정기용의 어린이 도서관, 서울: 현실문화, p.12.

심부라는 것.

어린이 전용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거나 책을 빌려가는 곳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정보 접근 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는(도서관 제1조 목적) 문화시설로서, 지역의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곳이자 지역 공동체의 중심부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적 기본시설이다. 기적의도서관을 처음으로 설계한 정기용은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이건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건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책을 접하고 만나고 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어린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상상하고 탐험하고 꿈꾸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⁶⁾ 설계목적을 밝혔듯이 어린이 전용도서관은 모든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누구나 상상력을 발휘하고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이하, IFLA)과 유네스코(UNESCO)가 제시한 공공도서관에서의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 지침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자료와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과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어린이들과 부모에게 도서관을 가장 잘 이용하는 방법과 인쇄 및 전자 매체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표 1 참조).

또한, IFLA에서는 전 세계 여러 국가의 공공도서관이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영유아 서비스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영유아 서비스 지침에서는 어린이도서관의 사명, 영유아 서비스

〈표 1〉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의 도서관 영유아 서비스의 목적

영유아 서비스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은 모든 영유아들과 그들의 부모 및 기타 가족 구성원, 보육 서비스 제공자 등 관련 성인들을 위한 놀잇감과 책, 멀티미디어, 기타 자원이 갖추어진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한다. ● 인쇄매체가 풍부한 환경을 조성하여 독서와 책에 대한 애정이 생기도록 돕는다. ● 어릴 때부터 멀티미디어와 기술 활용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는다. ● 사회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 영유아의 언어 발달을 돕는다. ● 소수 언어/민족 집단의 영유아들이 언어 능력과 2개 국어 사용 능력을 발달시키도록 돕는다. ● 소수 언어/민족 집단과 관련하여 영유아의 언어 및 읽기 능력의 발달에서 독서와 소리 내어 읽기가 갖는 중요성을 부모 등 관련 성인들이 인식하도록 돕는다. ● 어린이의 발달과 사전 독서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부모와 보호자들이 어린이에게 책을 읽어주도록 교육한다. ● 부모와 보호자들이 공공도서관에 있는 자녀의 연령에 적합한 자료와 자원을 이용하도록 교육한다. ●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다른 가족과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소개한다. ● 도서관을 방문하는 습관을 형성하여 평생 문해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 현재 뿐 아니라 미래에도 영유아와 함께 생활하고, 양육하고, 교육시킬 사람들을 지원한다. ● 영유아와 보호자들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 영유아와 그 가족들에게 따뜻하고, 친근하며, 안전한 공간을 제공한다.

자료: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2007).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to babies and toddlers. p. 5.

6) 정기용(2010). 앞의 책. p.13.

목적, 영유아 서비스의 운영 방안 등 영유아 및 그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의 제반 영역에 관한 기본 원리와 방침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도서관 서비스가 전혀 없는 지역의 어린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동도서관 서비스 및 지역 내 시설들을 이용하여 소외 지역 어린이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지침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어린이들을 도와주면 이후에도 꾸준히 도서관 이용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도서관과 친하게 지내려면 집 가까운 곳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일반도서관은 ‘정숙’하게 ‘바른 자세’로 책읽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활동적인 영유아들에게 도서관은 즐거운 장소가 아니며 일반인들에게는 영유아

들이 방해꾼으로 비취질 수도 있다.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조용히 책을 보는 장소가 아니다. 안방에서처럼 기고 뒹굴고 놀면서 보고 싶은 책도 보면서 상상력과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자 책 말고도 노래, 춤, 만들기 같은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어린이에게 꼭 필요하다.

나. 어린이도서관 설립 현황

도서관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이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또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을 의미한다. 이처럼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정부나 지자체가 설립한 도서관뿐 아니라 법인, 단체, 개인이 설립한 사립도서관도 포함된다.

〈표 2〉에서와 같이 어린이도서관은 공공도서

〈표 2〉 공공도서관 종류

종류	내용
작은도서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국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 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병원도서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병영도서관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교도소도서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자료: 도서관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검색일: 2013년 4월).

7) 조현성·정갑영·이용훈(2006).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중장기 발전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p.8.

관의 일종이다. 도서관법 제3조 별표 1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어린이와 성인이 같은 공간을 이용하더라도 어린이 열람석 비율이 20%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어린이 열람석을 별도의 공간으로 마련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린이와 성인이 동일한 공간을 이용할 경우, 양자 모두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가운데 절반 정도에서는 별도의 어린이(열람)실을 운영하고 있다.⁷⁾

어린이도서관이란 공공도서관 중에서 “어린이를 위해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로서,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의미한다. 국공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1990년대까지 어린이 전용도서관은 서울시립 어린이도서관과 양평어린이도서관 2곳뿐이었다.⁸⁾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은 1979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대상 공공도서관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설립 이후의 공공영역에서 어린이 전용도서관은 거의 세우지 않았다. 그러다가 1995년 지방자치단체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체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지자체 차원에

서 서서히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나, 2000년대 초반까지 부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도서관 ‘동화기차어린이도서관(2001년 건립)’과 서울시 노원구에서 설립한 ‘노원어린이도서관(2003년 건립)’ 정도에 불과했다.⁹⁾

어린이 전용도서관에 대해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킨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2003년도에 MBC 방송프로그램 느낌표에서 진행한 ‘기적의도서관’ 프로젝트였다.

‘기적의도서관’ 프로젝트에 의해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 사업이 진행되면서 어린이 전용도서관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산되었다. 어린이에게 최선의 창조적 성장환경을 제공하고 그 환경을 지속적으로 지켜주려는 건립 취지에 의해 도서관 건물의 설계에서부터 도서관 내 모든 가구와 시설을 어린이의 체격과 행동양태에 맞게 디자인한 기적의 도서관은 2013년 현재 전국에 총 11개관이 건립되었다(표 3 참조).

〈표 3〉 기적의도서관 현황

도서관명	개관일	운영방식
순천 기적의도서관	2003년 11월 10일	시 직영
제천 기적의도서관	2003년 12월 15일	민간위탁
진해 기적의도서관	2003년 12월 22일	민간위탁
서귀포 기적의도서관	2004년 5월 5일	시 직영
제주 기적의도서관	2004년 5월 5일	시 직영
청주 기적의도서관	2004년 7월 15일	민간위탁
울산북구 기적의도서관	2004년 7월 28일	구 직영
금산 기적의도서관	2005년 5월 5일	군 직영
부평 기적의도서관	2006년 3월 10일	구 직영
정읍 기적의도서관	2008년 5월 23일	시 직영
김해 기적의도서관	2011년 11월 30일	시 직영

자료: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www.bookreader.or.kr: 검색일 2013년 3월).

8) 문화체육관광부(2012b), 2012 한국도서관연감. p. 104.

9) 조현성 외(2006), 앞의 책, p. 53.

전국의 어린이도서관은 78개관(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2010년에 비해 7개관이 증가하였으며, 2006년 이후 해마다 10개 이하의 어린이도서관이 신설되었다. 2011년에는 7개의 어린이도서관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2009년 17개, 2010년 9개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1개 어린이도서관의 평균 봉사대상자수는 2011년 현재 91,507명으로 2010년의 112,957명에 비해 21,450명이나 줄어든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도서관수가 증가하는 데 비해 어린이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표 4 참조).¹⁰⁾

〈표 5〉에서 전체 공공도서관 중 어린이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06년 6.2%에서 2007년 6.3%, 2008년 7.1%로 꾸준히 증가하

여 2011년 현재 9.92%를 차지한다. 이는 어린이 전용도서관 또는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공공도서관 내에서의 어린이 서비스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¹¹⁾

지역별 어린이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26개, 서울 15개, 인천 12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 1~2개의 어린이도서관이 있다. 설립주체별로는 지방자치단체 78개, 교육청 1개, 사립 5개이며 교육청 소속은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이 유일하다(표 6 참조).

영유아 인구수에 비해 어린이도서관이 많은 지역은 인천, 충북, 제주 정도이며 대부분의 지역이 영유아 인구수 대비 어린이도서관이 부족한 실정이다(그림 1 참조).

〈표 4〉 어린이도서관수 및 1관 당 봉사대상 인구(2006~2011)

		단위: 개관, 명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어린이도서관(개)		29	37	45	62	71	78
1관당봉사대상인구(명)		310,305	236,883	189,311	133,048	112,957	91,507

주: 봉사대상 인구란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하며, 동농복합형 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洞)지역에만 해당)·구(동농복합 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洞)지역에만 해당)·읍·면지역의 인구를 말한다(도서관법 제3조 별표 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한국도서관연감, p. 105.

〈표 5〉 공공도서관 중 어린이도서관 증가율(2010. 12. 31. 기준)

		단위: 개,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공공도서관	도서관수	564	600	644	703	759	786
어린이도서관	도서관수	35	38	46	62	71	78
	비율	6.20	6.30	7.10	8.80	9.35	9.92
어린이도서관 증가율		-	0.1	0.8	1.7	0.55	0.57

자료: 강정아 외(2013), 앞의 책, p. 25에 2011년 추가함.

10) 문화체육관광부(2012b), 앞의 책, p.105.

11) 강정아 외(2013), 앞의 책, p.25.

〈표 6〉 지역별·설립주체별 어린이도서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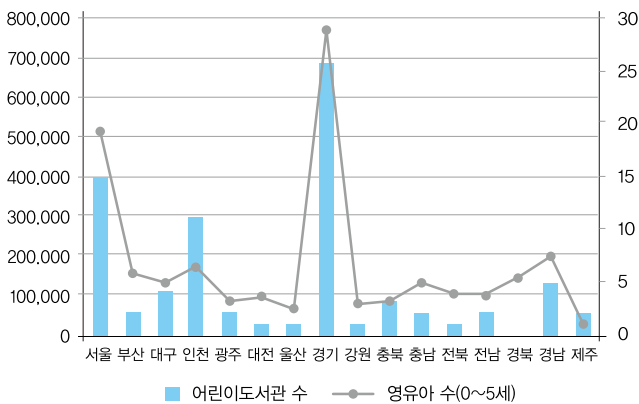
단위: 개관, 명

시도명	어린이도서관				영유아 수
	지자체	교육청	사립	계	
계	78	1	5	84	2,816,103
서울	15	1	0	16	502,984
부산	2	0	0	2	160,319
대구	4	0	0	4	126,056
인천	12	0	0	12	164,473
광주	2	0	0	2	87,735
대전	1	0	0	1	90,620
울산	2	0	0	1	69,826
경기	22	0	4	26	758,105
강원	0	0	1	1	75,796
충북	3	0	0	3	88,139
충남	3	0	0	3	127,571
전북	1	0	0	1	98,167
전남	2	0	0	2	97,468
경북	1	0	0	1	138,395
경남	6	0	0	6	195,016
제주	2	0	0	2	35,433

주: 영유아(0~5세) 수는 2012년 기준임.

자료: 1)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 검색일 2014년 4월).

2)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통계(rcps.egov.go.kr:8081/jsp/stat: 검색일 2013년 3월).



[그림 1] 지역별 어린이도서관 수 및 영유아수

3. 어린이박물관·미술관 설립 필요성 및 현황

가. 어린이박물관·미술관 설립 필요성

미국의 어린이박물관 종사자 및 전문가들의 연합 모임인 미국어린이박물관협회(Association of Children's Museums: ACM)에서 정의한 어린이박물관이란 “어린이의 호기심을 촉진하고 학습동기를 고양시키는 전시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요구와 관심에 부응하는 교육적 학습기관”이다. 전통적인 박물관이 소장품의 수집, 보존, 연구 및 비체험적 전시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면 어린이박물관은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을 중시하면서 어린이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관람객과의 맥락적이면서도 상호작용적인 체험적 전시체계와 프로그램을 강조한다¹²⁾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어린이박물관은 ‘유물’에서 ‘어린이’로 교육적 시선을 전환한 새로운 유형의 박물관이라 하겠다. 호기심이 많고 무엇이든지 만져보려는 욕구가 강한 영유아들에게 어두컴컴한 박물관내 유리관 안에 전시

12) Association of Children's Museums(1992/2012), Standards for professional practice in children's museums.

된 유물을 수동적으로 관람하는 것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활동에 그치기 십상이다.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어린이의 발달특성에 맞게 다양한 체험시설을 갖춘 새로운 개념의 박물관이다.

어린이박물관은 다양한 주제가 박물관에 들어와서 체험전시를 이제 만든 겁니다.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민속에 관심 없는 아이들은 거기에서 관심 있게 놀기가 어렵고, 과학에 관심 없는 아이들은 사이언스 디스커버리센터에 가서는 그만큼 재미있게 못 노는데, 여기는 다양한 주제가 있으니까 과학에 관심이 있는 아이는 과학(영역)에 가서 더 많이 놀 수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이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더 많이 놀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먼저 놓고, 그렇지만 그것이 정복이 되면, 그 다음 새로운 것을 찾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숙한 것과 좋아하는 것과 새로운 것들이 여러 가지 주제로 다 공유되어 있는 점이 저희 어린이박물관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 인터뷰 내용 중).

일반박물관이 ‘만지지 마세요(Don't Touch)’라고 요구하고 있다면 어린이박물관은 ‘만져보세요(Please Touch)’라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진 곳이다. 예를 들어 일반박물관이 유물 전시를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것이 목적

이라면 어린이박물관은 전통문화를 직접 만지고 체험하면서 즐기는 어린이를 기르는데 그 목적을 둔다.¹³⁾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박물관인 삼성어린이박물관은 호기심과 창의성을 촉진하며 즐겁게 탐색할 수 있는 체험적 전시와 흥미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미션 아래,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선진적인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립되었다. 어린이의 발달과 성장을 촉진하는 핸드온(Hands-on) 전시는 단순히 만지는 것을 허락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감을 사용해서 느끼는 마인즈온(Minds-on), 그리고 체험활동을 통한 공감으로 이어지는 하츠온(Hearts-on)으로 연결, 확장된다.¹⁴⁾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도 ‘전시’에서 ‘교육’을 강조하면서 2012년에 Edu-Studio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였다. 교육공간으로 재구성한 Edu-Studio에서는 현대미술관에 설치되어 있는 백남준 작가의 미디어아트와 연계한 통합·창의 교육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의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 영유아 교육프로그램 운영자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실제 교육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미취학 같은 경우에는 인지보다는 아무래도 표현활동이라든지, 오감을 자극하는 수업 위주로 진행해요. 전시관 감상도 하지만, 아이들이 이해하

13) 이은미(2012). 어린이박물관, 현실을 바라보며 미래를 생각한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개관1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자료집. p.103.

14) 이은미(2012). 위의 책. p. 105.

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이들에 맞게 작품도 쉬운 이야기를 통해서 동화를 통해서 작품을 감상하게 한다든지 신체표현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감각을 이용해서 뭔가 표현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수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 운영자 인터뷰 내용 중).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Edu-Studio 투어프로그램, <백남준의 ART LAB> 심화과정, TV 속 나의 모습 상상하기, 현대예술 푹!푹! 영화 감상 등이 있다.

나. 어린이박물관·미술관 설립 현황

1995년 삼성어린이박물관이 개관한 이래 어린이박물관 건립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8년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과 국립청주박물관 어린이전시관이 문을 연 이래 국공립 박물관의 부속기관 혹은 부속실로 많은 어린이박물관이 생겨났다. 2003년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2006년 국립광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터치뮤지엄, 국립김해박물관 체험학습실 등 2000년 중반 이후 전통적인 박물관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박물관 또는 어린이를 위한 체험학습실의 성장이 눈에 띄는 추세이다.¹⁵⁾

<표 7>에서 지역별 어린이박물관·미술관 현황

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에 각각 5개관이 있으며 인천에 2개관이 있는 반면, 대구·울산·대전광역시를 비롯하여 강원도, 전라남도, 제주도 지역에는 어린이박물관이 건립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어린이박물관·미술관은 국립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국립박물관·미술관의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다.

참고로 전국의 등록박물관은 694개관으로 1관당 인구수는 73,104명이며, 등록미술관은 154개관으로 1관당 인구수는 329,443명이다(2011년 12월말 기준).¹⁶⁾

4. 나오며: 정책제언

미국이나 영국 등의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문화기반시설들을 설립해 나갔다. 미국의 경우 1875년에 이미 188개의 공공도서관을 설립한 역사를 갖고 있다.¹⁷⁾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문화기반시설의 설립이 197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되면서 선진국에 비해 출발이 늦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늘어나고 주 5일 근무의 확대로 인해 시민들은 문화를 향유하고 여가를 누리는 등 삶의 질을 중시하면서 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소자녀화, 핵가족화, 맞벌이 가족의 증가로 자녀를 가정 내에서 양육하기 어려워진 현실, 자녀의 질 높은 교육에 대

15) 이은미(2012), 앞의 책, p.102.

16) 문화체육관광부(2012a), 앞의 책, p.14.

17) Stuart, A. P., Murray(2009), The Library: An illustrated history, 윤영애 역(2012), 도서관의 탄생, 서울: 예경, p. 219.

〈표 7〉 어린이박물관·미술관 현황

순번	시설명	개관연도	설립구분	지역	역사/비고
1	삼성어린이박물관	1995	사립	서울	- 2006년부터 순회 전시 시작 - 2013년 5월 '서울상상나라'로 새롭게 개관
2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	1997	국립	경기	- 2010년 어린이미술관 확대 개편
3	국립청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1998	국립	충북	
4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2003	국립	서울	
5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2005	국립	서울	- 2009년 어린이에너지놀이터 개관 - 2009년 어린이박물관과 신설
6	국립경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2005	국립	경북	
7	인천어린이박물관	2005	사립	인천	
8	어린이환경전시관 캐니빌리지	2005	사립	경기	- 한국금속캔자원협회
9	재미난박물관	2005	사립	인천	
10	롤링볼 어린이박물관	2006	사립	서울	
11	국립광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2006	국립	광주	
12	국립전주박물관 터치뮤지엄	2006	국립	전북	
13	국립김해박물관 어린이박물관	2006	국립	경남	
14	국립생물자연관 체험학습실	2006	국립	인천	
15	헬로우유지움(어린이미술관)	2007	사립	서울	
16	국립과천과학관 어린이관	2008	국립	경기	
17	아해한국전통문화어린이박물관	2011	사립	경기	
18	경기도어린이박물관	2011	공립	경기	
기타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체험관	2010	사립	충남	
	부산박물관 체험학습관	-	공립	부산	

자료: 국성하(2010), 우리나라 어린이박물관의 설립과 변화에 관한 고찰, pp. 94-95 재구성.

한 욕구 증대, 아동중심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으로 일반적인 문화시설과 더불어, 어린이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00년 이후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이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뒤쳐진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은 정숙을 요구하며 박물관은 낮은 채도의 정적인 분위기라 영유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문화시설을 접하게 되면 오히려 박물관, 도서관은 '재미없는 곳'이나 '가고 싶지 않는 곳'으로 인식되기 쉽다. 기적의 도서관이나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의 유아관에

가보면 기존의 '실내정숙'을 요구하는 일반도서관의 분위기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책을 읽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수유실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확장실과 세면대도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설치되어 있으며, 도서관 바닥을 온돌로 깔아서 책상뿐 아니라 바닥에 누워서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발달에 맞는 시설과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이 필요한 대목이다.

어린이 문화시설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어

이에 설치하느냐가 이용자 입장에서는 더욱 필요한 조건이다. 일본은 보통 걸어서 15분 이내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립되어 있으며 미국도 도서관의 입지조건으로 간선도로변에 위치하며 상가 및 근린지구 중심지 등 접근성을 중시하고 있다. 도서관 뿐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도 대부분 구도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역사가 오래된 특징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런던의 대영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 워싱턴의 스미소니안 박물관, 베를린의 오페라하우스 등이 구도심지에 입지하고 있어서 도시 주민뿐 아니라 국민 전체, 그리고 외국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¹⁸⁾ 앞으로는 어린이 문화시설 뿐 아니라 일반 문화시설도 영유아들이 부모와 함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가장 중요한 입지기준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문화경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에게는 접근성이 문화시설 이용에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다. 과천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의 접근성 문제는 오랜 논란거리였다. 2012년에 개관한 국립대한민국역사박물관(광화문 소재)과 2013년 11월에 개원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경복궁 터 옛 기무사 터)을 서울 도심 한복판에 건립함으로써 시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한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끝으로 어린이뿐 아니라 가족 전체 대상의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문화시설의 이용이 일회성이 아니라 체득화가 되기 위해서는 ‘재미’와 ‘새로움’을 선사해야 하겠다. 어린 자녀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모형 유물이나 체험 프로그램들이 주기적으로 교체되면서 제공되어야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다. 문화시설에 갈 때마다 항상 똑같은 전시, 똑같은 책,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아이들이 지루해 하고 아이들이 지루해 하다 보니 데려가지 않게 된다. 또한, 영유아 자녀와 문화시설을 지속적으로 즐겁게 이용하려면 부모에게도 재미가 있어야 하겠다. 일례로,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에서는 유물 등의 설명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은 동일한 시간대에서 다른 동선으로 부모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서 아이와 부모가 별도로 교육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같이 공감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녀를 위해 문화시설을 이용하지만 부모들은 아이들을 쫓아다는 데만 급급하다 보면 부모들도 쉽게 지치고 자주 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어린 자녀뿐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가족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18) 이원태·강석홍·김광식·김세훈(2004), 전국문화기반시설 최소기준수립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p.67.